

“전남 농민들의 보험이 돼 드립니다”

도, 농업정책보험료 1723억원 보조 ‘역대 최대’ 농작물 재해·농업인 안전·농기계 종합보험 3종 전년비 524억 증가...보험료의 최대 100% 지원

전남도가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농작업 중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료를 올해 최대로 보조해주기로 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정책보험료 보조 금액은 1조723억원으로, 자부담(223억원)을 포함하면 194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2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상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3종이다. 상품별 보험료 지원율은 80%에서 최대 100%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등 73개 품목, 14만9000ha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비는 1660억원 규모이고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상해, 사망 등 사고 시 실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올해 153억원 규모로 13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의 총 보험료는 약 9만 8000원으로 가입 농가는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사업비 133억원 규모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이며,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을 수료하면 3%(최대 3만원) 할인된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 운반차, 농업용로우더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업인에게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모두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3중으로 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해에 대비해 꼭 보험에 가입할 것”을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민 드론 활용도 높인다

전남인재개발원, 전남캠항공 등과 협약...전문인력 양성

전남도인재개발원(원장 윤연화)이 지난 8일 전남도립대에서 전남캠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전종훈), (사)대한드론협회(대표 김민)와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체험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인재개발원은 도민 드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드론교육 시설 활용을 지원한다. 제1기 도민 드론체험 및 누리소통망(SNS) 활용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진행된다.

인재개발원의 과정 지원, 대학 전문인력과 시설, 교육 업체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드론 체험 과정은 도민의 드론 활용 능력 향상 및 드론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을 주는 등 도민 교육을 대표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AI)드론 코딩, 드론 비행, 드론 촬영, 드론 방재 등으로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152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도민이 각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4회(4~9월) 과정을 운영해 160명의 도민을 교육할 계획이다.

도민이 기본교육 이수 이후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드론 자격증 취득을 바라면 심화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년 ‘자산 형성 마중물’ 희망디딤돌 통장 만기 지급

전남도, 1167명에 83억...이달 신규 1500명 모집

전남도가 2021년 4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에 가입한 청년 1167명에게 만기적립금 83억원을 지급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지자체와 청년이 공동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게 하는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산을 형성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혜택을 받은 청년은 2021년 가입자다. 3년간 매월 10만원씩 성실히 적립한 금액 360만원에 도와 사·군의 적립금 360만원을 더해 저축액의 두 배인 720만원과 이자가 추가로 지급됐다.

전남도가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 청년을 대상으

로 설문한 결과 ▲주거비(738명) ▲취·창업자금(246명) ▲결혼자금(137명) ▲학자금 대출 상환(46명) 등에 만기 적립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17년 청년 행복시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까지 6073명의 선정 청년 중 타 사·도 전출자 등을 제외한 3399명이 만기 적립금 247억 여원을 수령,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달 신규 대상자 150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국가 공모사업 유치 역량 제고

재정포럼 등 통해 정부 정책 방향 연계 사업 유치 노하우 공유

전남도가 국비 확보 대응 방법을 주제로 지난 5일까지 이틀간 ‘제4회 전남재정포럼’과 ‘국가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어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지역 동력사업 유치 역량 노하우를 공유했다.

‘전남재정포럼’에서는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와 함께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원 확보 방안을, ‘국가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공모사업 정부 정책 기조, 각 부처의 역점시책 방향의 이해, 전남 맞춤형 공모과제 발굴 등 국비 확보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포럼에서 김대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연

구위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료 및 의뢰서의 합리적 작성’을 주제로, 조임근 경기대 교수는 ‘전남 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박병희 순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두갑 목포대 교수,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배정아 전남대 교수, 윤태섭 충북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또 지난 1월 중앙부처 공모사업 200여 건을 파악해 사업별로 일정을 공유했다.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대응전략에 초점을 맞춰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심사·평가, 사례분석 등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서 글로벌 대학 30(1380억원), 2023년 농촌협약(600억원),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213억원) 등 195개 사업, 국비 총 1조4368억원을 확보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탄소중립 2050 실천 전남신보, 식물키트 나눔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지난 5일 식물키트를 맞아 재단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식물 키우기 키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전남 탄소중립 2050을 실천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순천·목포 등 6개 지점 방문 고객 150여명에게 식물 키우기 키트를 무료로 제공했다.

<전남신보 제공>

전남도, 고향사랑 실천 현장 홍보 ‘열기’

1~3월 전·축·제장 등서 서포터즈 가입 캠페인...7천명 모집

전남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군과 협력해 동계 전지훈련장, 진해 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을 찾아 전남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 홍보를 펼쳐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7000명을 모집했다.

특히 전지훈련장 전남에 체류하는 선수·임원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모집 활동을 펼쳐 비수기임에도 할인가맹점 이용이 증가했다는 입소문이다.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인 진해 군항제와 여의도 봄꽃축제장에서는 전남도와 시·군 직원들이 직접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서포터즈 가입을 희망하는 방문객으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전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남 사랑에 서포

터즈 신규 가입자와 추천인을 대상으로 1촌맺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총 252명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남도장터 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지역 농·수산물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전남 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00만명 모집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45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자에게는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해 전남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식당·카페 등 230여 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1만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 장애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집합 정보화 교육’

전남도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기관 9개소를 선정, 4월부터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대상은 신체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과 동일인 거주지의 직계가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취업 및 사회 진출 등에 유용한 정보화 자격증 교육과정을 비롯해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누리소통망(SNS)서비스 활용하기 등이다.

전남도는 최근 5년간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을 통해 총 2만여 수료생을 배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시인의 사진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